

일 주 문

제 2회 정조 효행백일장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4월 27일 오전 10시 용주사 내에서 제 2회 정조대왕 효행 백일장을 개최한다. (031)239-9391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년 스님은 4월 12일 문수정년회, 강원도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NO, 유해환경ZERO'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반도 평화기원 보살계 수계산림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4월 23일 한반도 평화기원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051)508-3636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 합천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4월 18일 제53회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를 거행한다. (055)934-3034

제1회 통도연등축제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4월 26일 통도사 산문일대에서 제1회 통도연등축제를 개최한다.

제10회 가톨릭독서콘서트 BBS불교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은 4월 25일 서울 불광동성당에서 제10회 가톨릭독서콘서트를 진행한다.

제10회 하루헌 무아전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은 4월 15~21일 대구문화체육관에서 제10회 하루헌 무아전을 개최한다.

운암 김성숙 선생 44주기 추모제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4월 12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의 44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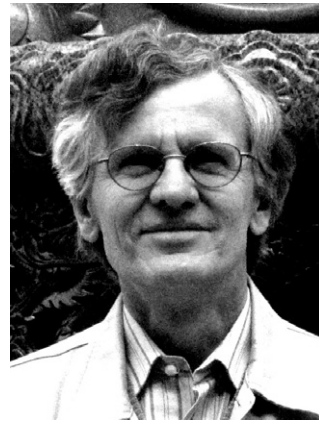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차집 나운하 대한불가사회장은 4월 20일 마포 BBS불교방송 지하 다보커피숍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차집을 연다.

자비의전하 장학금 전달식 고경순 자비의전하 회장은 4월 9일 능인중학교 씌름부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불교 세계화, 불서 번역 해야”

獨 비교종교학자 후터 교수

“원효·지눌 스님과 한국 불교를 책으로만 접하다 직접 눈으로 보니 경이롭습니다. 특히 한국 불자들이 법당에서 예불 올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 4월 6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만난 독일 본대학교(University of Bonn) 오리엔트-아시아연구소장이자 비교종교학자인 만프레드 후터(Manfred Hutter · 55 · 사진) 교수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동명대 초청, 본대학교 교류 “한국의 불교의식 경이로워”

후터 교수는 4월 1일 부산 동명대(총장 설동근)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독일에서의 불교와 종교다원주의’로 특강을 열고 동명대와 독일 본대학교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동명대 국제문화학부 불교문화학과는 본 대학교와 교류는 물론 한국어학당 및 기타 학문분야의 포괄적 교류협력을 추진해 국제교류를 유망권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타 환경에서의 다원주의’ 학술연구를 발표한 저명한 학자다.

비교종교학에서도 남방불교를 위주로 공부한 후터 교수에게 한국의 불교의식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스님만 불단에 예불을 올리게 돼 있어 신도들은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한다”며 “하지만 대승불교인 한국은 스님과 신도 모두 함께 예불의식에 참여해 서로 연결돼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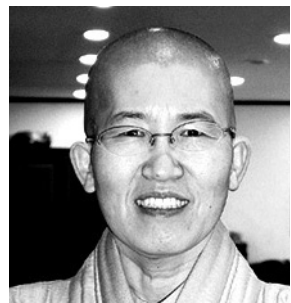
비교종교학에서도 남방불교를 위주로 공부한 후터 교수에게 한국의 불교의식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스님만 불단에 예불을 올리게 돼 있어 신도들은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한다”며 “하지만 대승불교인 한국은 스님과 신도 모두 함께 예불의식에 참여해 서로 연결돼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톨릭 신자인 후터 교수는 1984년 오스트리아 그라쯔 대학교 신학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부터 오리엔트 아시아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96년 오스트리아 종교학회 창립회원으로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종교학’ 시리즈 발행인이며, 지난해 6월 ‘독일 속의 아시아 종교-

후터 교수는 한마음선원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본대학교 비교종교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해유 스님(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의 지도교수를 맡게 되면서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한마음선원을 접하게 된 것.

“청소년 포교, 지금 씨앗 뿌릴 때”

인천불교계 최초 청소년문화원 개원한 일지 스님



“청소년들은 불교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인천불교의 미래를 밝힐 청소년 도량이 마련됐다. 조계종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은 4월 7일 인천불교계 최초로 청소년문화원을 개원했다. 인천불교회관 인근에 자리한 청소년문화원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리모

델링한 포교 전문 도량이다. “평소 청소년 법회 공간이 마땅치 않아 학생들이 옮겨다니며 법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공간에서 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따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불교세가 약한 인천에서 일지 스님은 어려운 사중 살림에도 어린이·청소년법회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 일지 스님은 청소년문화원에서 각 공간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오카리나 등 음악강좌와 불교무용과 난타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층에는 3월 문을 연 ‘나란다 불교대학’이 들어서 교양강좌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연구 이영자 신임원장

4월 7일 이취임식 개최 39주년 기념식도 열어



이영자 동국대 명예교수가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이취임식 후 창립 3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영자 원장은 1974년 한국 불교연구원 창립 당시 연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연구원 부설 원효학당에서 불교강

좌를 이끌어 왔다. 현재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서울구도회에서 정기적으로 ‘법화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자 원장은 천태불교학의 권위자로 2001년까지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불교대학장 및 불교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또 한국여성학회 회장 및 불교여성개발원 교편을 맡는 등 여성학의 토대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이영자 원장의 주요저서는 <한국 천태사상의 전개> (천태불교학) <불교와 여성> (일본불교사) (선종사상사) 등이 있다. 한편 한국불교연구원은 원장 이취임식 후 창립 39주년 범회도 개최했다. (02)762-5624 노덕현 기자

화엄사 주지에 영관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영관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문중 화합하고 어른 잘 모시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자승 스님은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관심을 표하고 종단 차원의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진오 스님, 독일 700km 대장정 완주



달리는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진오 스님이 이번에는 독일 700km 대장정에 성공했다.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은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독일 옛 수도 본의 한국대사관을 시작으로 통일 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700km 대장정을 완주했다. 이번 대장정은 독일과 수교 130주년이자 파독 광부 50주년을 맞아 한국과 독일의 새로운 미래 발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신종일 기자

동국대, 대학야구 춘계리그 휩쓸어



동국대가 4월 9일 목동구장에서 2013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에서 흥익대를 4대 0으로 꺾고 우승했다. 대회MVP는 결승 타점을 올린 강민국(체육교육4) 선수가 선정됐다. 강민국 선수는 대회 타점왕을 수상하기도 했다. 2회에 3루타로 1점을 낸 안상민(체육교육4) 선수는 우수선수상을, 대회 내내 안정된 투구로 팀의 승리를 이끈 고영표(체육교육4) 선수가 우수투수상을 수상했다. 김희욱 동국대 총장은 공로상, 이진열 동국대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세계적 여성 명상 지도자 디빵까라 세알레이 초청10일 명상수행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가르침을 그대로 사마타(선정)와 위빠사나(통찰)수행을 단계별로 지도합니다. 수행의 시작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개인 면담 지도를 받으며 수행 할 수 있는 매우 귀하고 의미있는 기회입니다. 초심자에게는 명상의 주된 주제인 아나빠나 사띠(호흡관)와, 사대(지, 수, 화, 풍) 요소관이 주어지며 이후 집중과 지혜의 계발에 따라서 개별적인 가르침을 받습니다. ◆수행일정안내◆ - 일 시 : 2013년 5월 6일 ~ 5월 15일 (9박 10일) - 장 소 : 봉인사 한길정진원 (www.bonginsa.net / bonginsa@hanmail.net) - 참가비 : 45만원 (스님 : 1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355-0000-5973-03 (예금주 : 봉인사) - 준비물 : 개인세면도구, 개인컵 - 접수문의 : 031)574-5585, 070-7766-6547 ***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는 뜻있는 이자리에 모인 모든 존재들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두손 모아 기다립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